제주시장 이상봉·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명

위성곤 지사 직접 인선 결과 발표 "모두 적임자로 판단"
서귀포 재공모… 직전 도의장 지명에 도의회 반발 기류

이창흠

이상봉

민선 9기 제주도정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정됐다. 또 초대 기후경제부지사로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발탁됐고, 서귀포시장에는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봉 제주시장 내정자는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오현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도의원에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31일까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위 지사는 발탁 배경에 대해 "이 내정자는 오랜 기간 도민과 같이 호흡하며 최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도민과 함께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 발전과 민생 안정에 힘써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된 이창흠 내정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남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킬(KEELE)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1997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한 환경부 정책 기획통으로 꼽힌다.

위 지사는 이 내정자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기후·환경 전문가"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가 기후경제수도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장은 재공모 절차를 밟는다. 인사위원회가 적격자로 판단해 추천한 공직자 출신 인사가 건강상 문제로 응모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 지사가 지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도는 서귀포시장 재공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년의 시장 임기 중 약 3개월 간 공백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민주당 도의원 출신이 시장에 지명됐지만 같은 당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도정을 견제하는 대의기관 수장을 지낸 인사가 퇴임하자마자 바로 시장으로 임명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 초기부터 내정자로 이상봉 전 의장이 거론되자 민주당 도의원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체 간담회를 연데 이어, 하루 뒤에는 원내대표단이 회동을 가졌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모 도의원은 "인사권한이 아무리 도지사에게 있다고 해도 대의기관 수장이 어떠한 공백기도 없이 바로 시장에 가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느냐"며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위 지사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전직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 외에는 다른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고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위성곤 도정, 3수석 이외 4·3인권특보 신설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 따른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정책보좌를 강화하기 위해 4·3인권특보가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 정책보좌를 위해 기존 정책·정무·기획수석 외 4·3인권특보 전문임기제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중앙협력본부 국회대외협력부장과 국회대외과장을 추가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고 도지사 직속으로 기존 대변인과 기본사회추진단과 청렴감찰관, 기능이 확충·변경되는 기후경제부지사 밑에는 소통·제2공항담당관과 AI행정혁신추진단을 배치했다. 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노동안전감독관이 추가됐다.

이밖에 첫 조직개편안으로 확정된 기후에너지국 신설과 15분도시추진단,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의 폐지 등 기구 개편안도 담겨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접수

연간 20만원 상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여성어업인 중 21세 이상 70세 이하로,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는다.

제주도는 올해 2억4000만 원을 투입해 1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난해 도입된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초 소속 지구별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받는다. 사용기한은 카드를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상민기자

도내 농경지 74개 지점 토양수분 관측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역 농경지의 토양수분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가뭄 대응과 농업인의 적정 관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74개 지점에 토양수분 상시 관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토양수분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기존 자동기상관측장비(AWS) 39개 지점에는 토양장력센서를 추가 설치하고 별도 농경지 35개 지점에 토양용적수분센서와 토양장력센서를 신규 설치했다. 관측지점은 제주지역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포와 토양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주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관측지점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토양 유기물 함량과 화산회토·비화산회토 분포 등을 반영했다. 이는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토양 특성에 따라 수분 보유력과 건조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자동기상관측지점과 관측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점 간 거리도 함께 고려했다. 74개 지점에서 관측된 토양수분 정보는 현재 농업기술원 제주디지털영농(제주DA) 누리집의 '농업기상-가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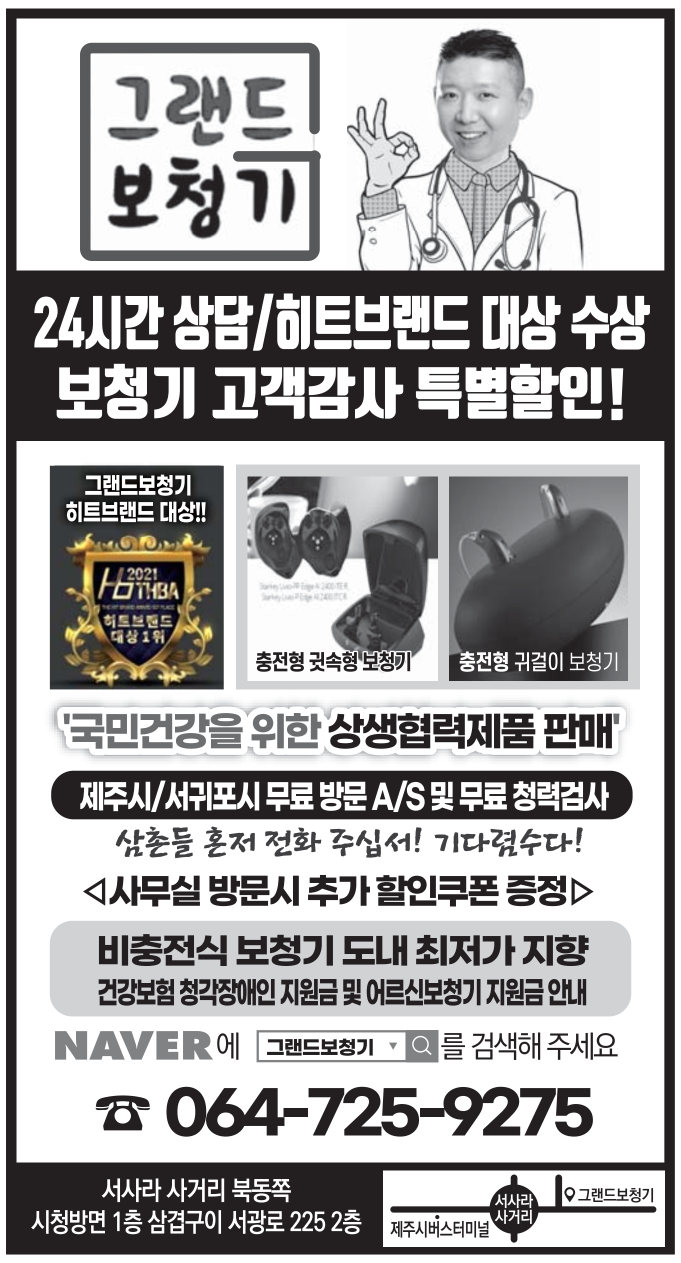
도 농기원은 구축된 관측정보를 강수량이 적은 시기의 농업 가뭄 상황을 판단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작물별 적정 관수 시기 판단 등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밤의 생태여행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야간 등화 곤충관찰체험'에 참가한 가족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아파트 시행사 민주당 정치인 로비의혹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제주녹색당 수사 촉구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지역 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내 정치권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논평에서 "A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사업 추진 당시 오영훈 전 제주지사의 보좌진들에게 수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이같은 접대를 받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A아파트 시행사가 직원을 동원해 모은 민주당 입당원서를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이 사건은 단순 비리가 아닌 정경유착일 수 있다"며 "제주경찰청은 시행사의 자금 흐름 및 정치권 유착 면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난 아파트 사업 이면의 실체는 충격적"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로비 및 당원 불법 모집 의혹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